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학교에 차 마시고 놀 수 있는 카페가?

※ 이 사례는 신미옥 경기 양진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 양진중의 Wee클래스는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Wee Cafe(이하 위카페)'와 학급 친구들이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학급별 칭찬 릴레이'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프로그램입니다.



차 마시고 보드게임 즐기며 '교우관계' 회복해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 점심시간이면 양진중 위클래스에는 '위카페'가 문을 엽니다. 위카페에는 특별한 초대장을 받은 학생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장을 받는 학생은 학교생활 적응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로, 각 학급 담임교사가 선발합니다. 3월에는 1학년, 4월에는 2학년, 5월에는 3학년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매 회 15명에서 20명의 학생이 위카페에 초대되지요.

위카페에 초청받은 학생들은 또래상담사에게 간식과 차를 대접받으며, 상담실에 마련된 보드게임과 포켓볼, 탁구 등을 함께 즐깁니다. 상담실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 혼자

어색해하는 친구에게는 또래상담사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며 편하게 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상담실에 마련된 게임은 여러 명의 친구와 함께 해야 하는 게임이므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소통·배려·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게임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연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며 교우관계도 쌓아나가지요.

위카페를 계기로 학생들은 상담실을 딱딱한 공간으로 여기지 않고, 누구나 마음 편히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상담실과 상담교사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면서 학생들은 상담 교사에게 친구·성적·가족에 대한 고민을 전하며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러 번의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학생들은 점차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칭찬 릴레이’로 행복 넘치는 학교 만들기

위카페와 함께 매년 진행하는 ‘학급별 칭찬 릴레이’도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학생들이 또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거친 단어를 사용하고, 친구의 단점을 쉽게 말해 상처를 주곤 합니다. 학생들이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대화를 나누면 밝은 학급과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고안한 프로그램이 바로 학급별 칭찬 릴레이입니다.

학급별 칭찬 릴레이는 학생들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한 학기말에 진행합니다. 출석번호 1번 학생이 2번 학생에 대한 칭찬을, 2번 학생이 3번 학생에 대한 칭찬을 포스트잇에 적는 방식이지요. 칭찬포스트잇을 작성할 때에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단점 대신 장점 적기 △외모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하기 △장점 3가지 이상 적기입니다. 칭찬이 적힌 포스트잇을 모아 하드보드지에 붙이고, 이를 장식해 학교 1층 로비에 일주일간 전시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지 못했던 친구의 장점도 깨닫게 되며, 다른 친구들이 보는 나의 장점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긍정적인 면모를 알게 되면서 학급·학교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답니다.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대구지역 교사동아리 '목요커'

합주하고 노래하며 얻은 긍정적 기운을 학교에도 전파!



버스킹 연습을 진행하고 있는 '목요커' 교사들. 대구 운암중 제공

대구광역시에는 초·중·고·특수학교 교사들이 모여 대구 시내에서 버스킹(거리공연) 활동을 진행하는 교사동아리 '목요커'가 있다. 2014년 결성된 목요커는 매주 목요일마다 버스킹을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짓게 된 이름. 목요커의 교사들은 버스킹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교사동아리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내 학생 버스킹 동아리를 운영하기도 한다. 목요커를 이끄는 김기윤 대구 운암중 수학교사에게 동아리 활동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거리공연과 작사·작곡하며 업무 스트레스 해소해요

목요커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데 관심이 높았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동아리. 김 교사는 음악활동이라는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해 교사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학생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버스킹 동아리를 구성했다.

목요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 버스킹 공연을 위한 연습을 진행한다. 여러 차례의 연습을 실시한 후 대구 시내, 서문시장, 수성못 등으로 나가 공연을 한다. 제 각각 다른 소리를 내던 기타, 멜로디언, 쟈뎀 등의 악기가 여러 차례 연습을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교사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목요커는 버스킹 공연뿐만 아니라 '학교'를 주제로 자작곡을 만들기도 한다. 대표 곡 중 하나인 <학교 가야지>는 '엄마 나 학교가기 싫어요. 엄마 나 피곤해요. 그래도 너는 꼭 가야지. 네가 선생인데'라는 워트 있는 가사로 교직생활의 애환을 드러낸다. 이러한 곡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합주연습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연 교사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

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

김 교사는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면서도 때때로 학교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며 “목요커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학교생활에 힘이 되는 든든한 동료로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사동아리의 장점을 교내 학생동아리에 적용!

목요커의 교사들은 ‘합주’에서 요구되는 협력·배려의 자세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해 교내 학생 버스킹 동아리를 구성했다. 교사동아리에서 느낀 버스킹의 장점을 학생들에게 적용해 본 것.

김 교사는 3년 전 1~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운암중 버스킹 동아리를 만들었다. 동아리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교 중앙 뜰에서 게릴라 공연을 진행한다. 이 공연을 보러 100~200명의 학생이 모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연주와 노래 실력을 인정받은 운암중 버스킹 동아리는 목요커와 함께 대구교육청의 초대를 받아 교원 대상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노래를 완성해가며 배려·협력·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친구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한편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로 사제간의 정을 쌓기도 했다.

김 교사는 “동아리 학생 중에는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교사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는 학생도 있었는데, 학생이 동아리활동을 통해 많은 칭찬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이러한 변화를 본 목요커 소속 교사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교내 버스킹 동아리를 운영하며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